석재·섬유 향토기업 지원 강화

익산시, 업체 120여 곳 총 6억4000만원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익산시가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석재·섬유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토산업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섬유업체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지역 석재·섬유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시설개선과 석분운반비 지원 등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복지 편익과 노후기계 교체 등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석재업체 환경·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업체당 최고 1천만원을 섬유업체 환경·시설 개선 지원에는 업체당 최고 1,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에 업체당 최고 4,025만원을 지원하며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 사업은 업체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고 및 접수기간은 섬유업체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이달 20일까지다. 석재업체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사업,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사업비는 업체가 신청접수 후 현장 실태 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오는 3~4월부터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사업별 신청기간을 확인해 기간 내 임시청사 기업일자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또는 사이버 기업지원센터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석재·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기업 활성화 도모 및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고용 창출·지역민 우선채용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 7개 업체 표창

군산시는 3일 지난 2022년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 고용안정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 7개 사를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공모를 진행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신규고용 증가율과 군산시민 채용률 등을 평가해 최종 7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지난 12월 30일에 개최된 종무식에서 군산시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선정된 7개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리를 추가 보전하고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된 7개 기업은 △감사합니다협동조합(대표 김한희), △(주)성현(대표 김호성), △(유)울림환경기술원(대표 여성구), △(주)웨니테크(대표 임동원), △(유)진테크(대표 진규식), △(주)삼성종합물류(대표 김덕중), △(주)우남기공(대표 문정수)이다.

선정된 기업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운영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인재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기업을 혁신적으로 경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신규 기업들과 이미 지역에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추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어린이 살기좋은 환경 만들기 최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실시

군산시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보육 및 놀이시설에 대한 중금속 등 환경유해 인자 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측정 대상은 실내(벽, 바닥, 문틀 등)와 실외(고무바닥재, 모래 등)로 나눠 실시하며 어린이 보육 및 놀이시설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점검은 환경유해인자 점사기관에 의뢰해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4대 중금속 및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점한다.

시는 지난해 총 67개소(환경부 지원 점검 19개소, 자체점검 48개소)를 점검 65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2개소에는 개선명령을 실시했다.

올해에도 순차적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에게 강화된 기준을 집중 홍보해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환경유해인자 여부를 점검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군산시는 3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과연수가 20년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위탁용역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어려운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안전 실태 및 구조안전성 조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방법 등의 내용이 수립된 보고서를 공동주택 주민대표 및 관할 읍면동에 제공해 이후 주민들이 안전 관리 및 보수보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개 단지 39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1월 중 안전점검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용역 설계 및 업체 선정, 3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하는 안전점검 위탁용역은 관리주체가 없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사고 예방 및 생명 보호를 하기 위함"이라며 "올해에도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군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알파세대 대상 '백제왕궁 어린이 퍼레이드' 운영

익산시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알파세대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 백제문화유산을 알리고 백제문화의 멋을 새로 조명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직업체험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에서 '백제왕궁 어린이 퍼레이드'를 운영하며 1600년 역사 속 장면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았다.

2023 익산방문의 해 및 익산관광 홍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작년 말 종료되기로 하였으나,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이달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백제왕궁 어린이퍼레이드'는 매일 12회씩 운영하며 1회당 8명의 어린이가 참여한다.

백제 어린이들이 백제복식을 입고 익산의 역사와 관광에 대해서 공부한 뒤 키자니아 서울 광장에서 '서동애가' 노래와 함께 댄스공연을 선보이며 '공연체험'으로 확장된다.

특히 서동애가 노래와 춤이 함께한 공연이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로 어린이와 부모님 모두 만족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저출산 시대 온 가족에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알파세대' 코드에 맞는 문화유산 향유 트렌드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어린이들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이 부모들은 sns인증 이벤트를 즐기면 된다. 인증샷과 함께 #2023 익산방문의 해 #익산백제왕궁 #익산여행 해시태그를 개인SNS에 업로드 하면 익산 인기관광캐릭터인 마룡인형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익산을 홍보하고, 특히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등 백제와 관련된 익산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며 "소비자들의 문화코드에 맞춘 상품개발로 앞으로 더욱 2023 익산방문의 해 성공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월14일부터 시작한 백제왕궁 퍼레이드에는 12월말 기준 총 4,165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야구 명문 대치중, 익산서 동계 전지훈련 들어가

대치중학교 야구부는 야구 전지 훈련지 메카 익산시에서 18일간의 동계 전지훈련에 들어갔다.

시의 적극적 유치 활동으로 추진된 이번 훈련은 대치중학교 2, 3학년 선수단 29명을 포함한 총 34명이 18일간의 합숙 훈련으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숙박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대치중 야구부는 작년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오시리아리그)서 3위를 거머쥔 명문팀 이며, 충암고등학교에 진학한 박진권 투수 등 미래 한국 야구의 기대주가 성장하고 있는 팀이다.

또한 이달 6일 서용빈 전 감독을 필두로 9일 차명석 현 LG단장 등이 익산시 훈련장을 방문하여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박철홍 대치중학교 감독은 "익산은 최신설비 야구장이 집적되어 있는 최적의 훈련지로 선수단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주시는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선수들의 익산시 방문을 환영하며, 내실 있는 동계 훈련으로 2023년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보로 전지훈련 및 대회를 유치하여 체류형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 부담 해소

익산시가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면정책은 경기 침체와 함께 농촌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자는 지역 모든 농업인이며, 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에 구비 중인 57종 650대 기종에 대해 임대료가 감면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함열, 동부, 남부 등 세 곳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연장으로 2,200여 농가에게 6,000만원 가량의 영농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농업인에게 약소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건축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군산시는 3일 건축법률과 관련된 눈높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열린민원과 옆 민원상담실에서 건축무료상담소를 매주 수요일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실시하며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

주요내용은 인허가 관련 절차 및 민원처리 과정 상담과 건축법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생활밀접 건축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률 무료상담소는 군산지역 건축사회와 시가 지난 2019년 1월 관련 협약을 체결해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30여차례 무료상담을 실시했고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을 중지해 30여차례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률 무료상담소는 작은 민원부터 건축관련 인허가 관련 절차를 상담해주어 시민들에게 호응이 아주 높았던 프로그램"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